

## 생생했던 온라인 페스티벌 성황리에 마쳐



지난 5월 13·14일 양일간 낙산관 대강당에서 '2021 상상부기 온라인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페스티벌은 13일 '비긴어게인', 14일 'E-Sports 챔피언십'으로 구성됐으며 본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됐다.

1일차에 진행된 비긴어게인에서는 '가요제 본선'과 '이영지의 고민 상담해드립니다!'가 진행됐다. 가요제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6팀이 무대에 올랐으며 ▲대상

(1팀) ▲금상(1팀) ▲은상(1팀) ▲동상(3팀)이 선정됐다. 구글 설문지를 통해 진행된 실시간 투표 결과, 김수영(인문 2) 학생이 대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후 가수 이영지가 공연과 고민 상담을 진행했다. 이영지에게 고민을 상담한 이지현(사회과학 1) 학생은 "첫 대학 축제에서 연예인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자리를 가져 즐거웠다"고 전했다.

2일차에 진행된 E-Sports 챔피언십

에서는 모바일 카트라이더와 LEAGUE of LEGENDS(이하 LOL)의 결승전이 이뤄졌다. 모바일 카트라이더에는 신지섭(ICT 1) 학생이, LOL에는 한사랑 산악회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한사랑 산악회의 대표인 유영준(기계 4) 학생은 "현재 4학년이라, 학교에서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게임 대회라 생각하고 결승전에 임했다"며 "좋은 결과를 얻어 만족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윤 기자 jizhejy@naver.com

## 지속된 A씨 연락에... 총학 "신고 절차 논의 중"

본지 567호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속출했지만... 처벌 어려워」에서 다룬 신원미상의 인물 A씨(이하 A씨)가 지난달 또다시 본교 학생에게 개인정보가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락은 특정 학과가 아닌 다수의 학과 학생에게 행해졌다. 총학생회는 경찰에 해당 사건 민원을 넣은 상태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본교 영어영문학부, 무역학과 등의 학생에게 문자를 발송한 바 있다. 자신을 본교 선배라 소개한 A씨는 수신인의 이름, 학교, 학부·과를 사전 인지한 상태였다. 제보에 따르면 A씨는 5월 1일과 18일에도 다수의 본교 학생에게 연락을 취했다. A씨의 발신번호와 수법은 이전과 동일했다. 이번에는 한 학생과의 통화에서 "번호로 아무 짓도 하지 않을 테니 연락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본 사건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 학생은 "신원미상의 사람이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다는 게 너무 불쾌했다. 전과 같은 피해가 재발한 것을 보아, 향후 추가 피해가 있을까 두렵다"며 "학생회 및 학교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각 학부·과 학생회가 전체 피해 사례를 접수받은 결과, 대략적인 피해 인원은 영어영문학부 15명, 역사학과 7명, 문헌정보학과 30명, 경영학과 10명 등이었다. 이외에도 본지가 지난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IT공과대학 2명, 미래플러스대학 1명의 학생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경로가 파악된 학부·과는 영어영문학과와 역사학과, 문헌정보학과다. 해당 학생회는 개인정보 유출의 주 경로를 각 학부·과의 포털 사이트 카페로 파악했다. 이들은 카페 내 개인정보가 적힌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카페 폐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총학은 본지 567호에서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지난달 28일 경찰청에 온라인 민원을 넣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이경택(컴공 4) 총학생회장은 "A씨의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신고 절차를 논의 중"이라며, "해당 피해를 경험한 학생이 있다면 언제든지 자신이 속한 학부·과 혹은 단과대학, 총학, 대학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총학으로부터 진행 상황을 전달받으며 후속 대처를 논의 중이다. 박태민(학생장학팀) 팀원은 "현재 개인정보의 유출 경로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학교 외부 사이트를 통한 유출 가능성이 높아 본부는 공식글 게시를 통해 학생들에게 주의를 요하는 방향으로 조치 중"이라며 "피해 학생들이 신고를 원한다면 총학에 전반적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혜정 기자 hhj716@hansung.ac.kr

## 2021학년도 전반기 2차 대의원총회, 선거세칙 개정 및 예산 인준 마무리

지난 5월 18일, '2021학년도 전반기 2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상상관 203호에서 열렸다. 총회는 오후 1시와 4시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대의원 52명 전원이 참석했다. 안건으로는 선거 시행세칙(이하 선거세칙) 개정, 예산 인준 등이 제시됐. 재적 대의원 과반의 찬성을 받아 가결됐다. 선거세칙 개정안은 부칙에 따라 올해 하반기 총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선거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신설
- 후보자 등록 자격 기준 추가
- 당선기준의 투표율 50% 상향에 대한 처리

먼저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신설은 부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연석회의는 단과대학 선거를 진행 및 조절하는 선거관리 조직이다. 연석회의 조직위원(이하 조직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위원장)과 각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구성되며, 연석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 공석 혹은 부재 시 총대의원회 부의장이 연석회의 의장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조직위원은 단과대학 선거 후보자의 자격요건을 검토할 예

정이다. 차원식(스마트 4) 총대의장은 "기존 단과대학 선거 후보자 심사는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담해 진행했다. 그러나 심사자와 피심사자의 소속이 같으면 심사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연석회의를 통해 단과대학 내 선거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후보자 등록 자격 기준은 기존 항목에 'IPP(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 및 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자'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개정 전 후보자 등록 자격 기준은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누적 평점이 1.88/4.5 이상을 취득한 자 ▲직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자 ▲징계나 제적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차 의장은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IPP 참여자와 재직자가 학생회장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당선기준도 변경됐다. 기존 학칙에서는 총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단선일 경우 투표 인원 과반수의 득표가 있을 시 당선으로 규정했다. 낙선기준은 투표율

이 50% 미만이거나, 단선의 경우 과반수의 표를 얻지 못할 때이다. 이때 과반수는 50% 초과를 의미한다. 이번 개정으로 '과반수'가 '50% 이상'으로 변경됐다. 차 의장은 "기존 학칙에 따르면 투표율이 정확히 50%일 때는 낙선도 당선도 아니게 된다"며, "지금까지는 투표율이 정확히 50%였던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개정했다"고 전했다.

### 단과대학별 1학기 예산 인준의 주요 내용

- 디자인대학 총 2,407,550원 인준
- IT공과대학 총 3,134,640원 인준

지난 3월 보궐선거에서 구성된 디자인대학 학생회와 IT공과대학 학생회의 1학기 예산도 인준됐다. 디자인대학의 1학기 예산은 총 2,407,550원으로 결정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시험기간 간식 사업 ▲방역 물품 구매 ▲종강 기념 이벤트 등이 포함됐다. 김택균(ICT 4) 디자인대학 학생회장은 "디자인대학 학우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대학생활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IT공과대학은 총 3,134,640원을 인준받았으며, 세부 항목으



▲'2021학년도 전반기 2차 대의원총회'에서 차원식 총대의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로는 ▲시험기간 간식 사업 ▲프린트 지원 사업 ▲스티커 회수 사업 ▲온라인 이벤트 등이 있다. 배기빈(산업경영 4) IT공과대학 학생회장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준비했다. 코로나19로 지친 학우들이 남은 학기를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힘을껏"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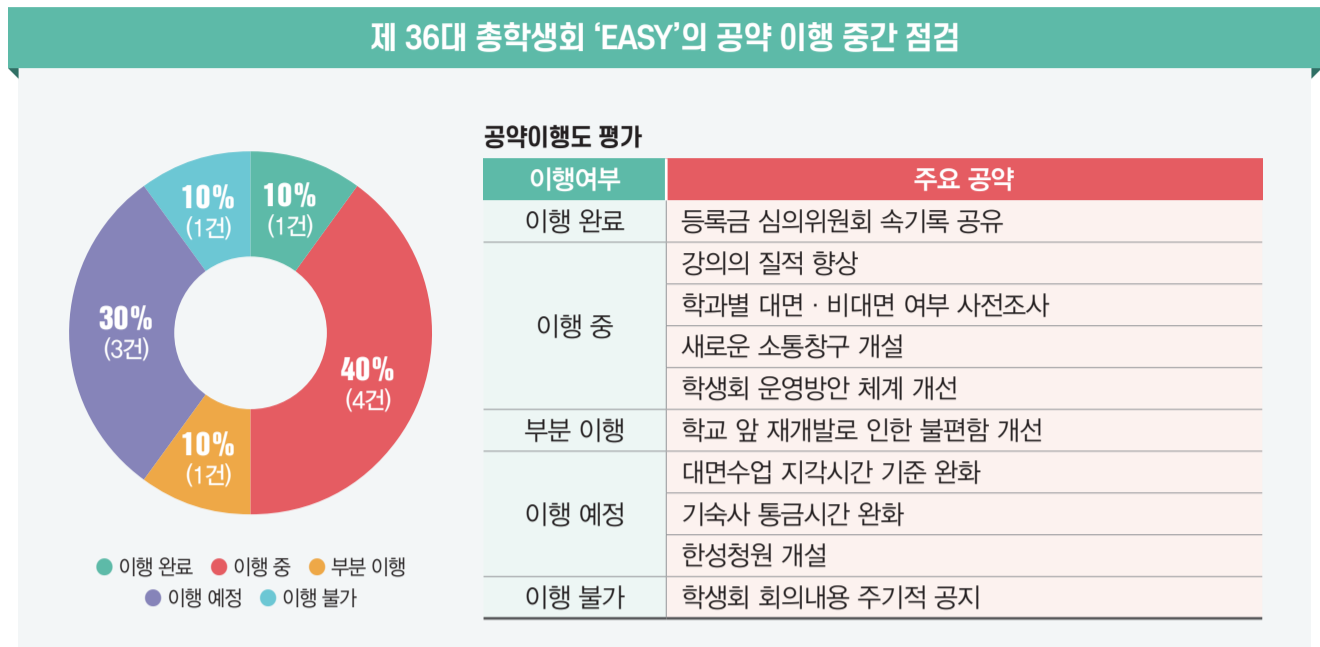
박한석 기자 hanseok@hansung.ac.kr

# 총학생회 'EASY'의 지난 6개월 톺아보기

총학생회 'EASY'의 임기가 시작된 지 6개월 차다. 지난해 총선거에서 총학은 주요 공약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 속기록 공유 ▲강의의 질적 향상 ▲학과별 대면·비대면 여부 사전조사 ▲새로운 소통창구 개설 ▲학생회 운영방안 체계 개선 ▲학교 앞 재개발로 인한 불편함 개선 ▲대면수업 지각 시간 기준 완화 ▲기숙사 통금시간 완화 ▲한성청원 개설 ▲학생회 회의내용 주기적 공지 등이 있다. 현재까지 총학의 공약 이행 상태는 이행 완료 1건(10%), 이행 중 4건(40%), 부분 이행 1건(10%), 이행 예정 3건(30%), 이행 불가 1건(10%)이다.

현재까지 총학이 이행을 완료한 공약은 '등록금 심의위원회 속기록 공유'다. 총학은 등록금 사용 실태의 학생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공약을 추진했다. 총학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등록금 심의위원회 내용을 정리해 지난 3월 17일 총학 공식 인스타그램 및 학내 커뮤니티에 카드뉴스로 게시했다.

▲강의의 질적 향상 ▲학과별 대면·비대면 여부 사전조사 ▲새로운 소통창구 개설 ▲학생회 운영방안 체계 개선 공약은 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학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강의의 질적 향상'과 '학과별 대면·비대면 여부 사전조사'를 대학본부에 건의했다. 온라인 강의가 도입되고, 일부 강좌에서 강의 영상을 재사용하거나 업로드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한 강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전면 대면 및 비대면 수업 방식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제기됐다. 이경택(컴공 4



총학생회장은 "건의사항이 제대로 반영 됐는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소통창구 개설' 공약은 공식 인스타그램을 개설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행되고 있다. 이 회장은 "과거 인스타그램 계정은 팔로워가 전혀 없어서 공식 계정이라고 할 수 없었다. 새로운 계정을 개설해 학생과의 소통 플랫폼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회 운영방안 체계 개선' 공약을 위해서는 학생 의견 취합 단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중이다. 학과 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총학생회 순으로 의사소통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이전까지는 학생회 간 소통 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일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학생대표들과 꾸준히 논의하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부분 이행된 공약은 '학교 앞 재개발로 인한 불편함 개선'이다. 총학은 세부 항목으로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 공지 ▲정문 외 출입구 증가 ▲재개발 구역 안전 순찰 등을 계획했다. 공사 진행 상황 공지는 상반기 2건이 총학 공식 SNS에 게재됐으며, 방중에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문 외 출입구 증가' 항목은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공약은 학교 앞 재개발로 마을버스 성북02의 운행 제한이 예상돼, 도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 제시됐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출입 통제 때문에 출입구를 추가 개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등교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추가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개발 구역 안전 순찰' 항목은 이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 회장은 "해당 공약은 총선거 당시 총학과 학생복지위원회에서 모두 내세웠었다. 논의 끝에 안전순찰은 학생복지위원회와 사회봉사단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다"며, "누가 진행하는 주기적으로 순찰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행 예정인 공약은 ▲대면수업 지각 시간 기준 완화 ▲기숙사 통금시간 완화 ▲한성청원 개설이다. 대면수업 지각 시간 기준 완화는 재개발로 인해 통학이 불편해

집에 따라 계획됐다. 총학은 지각시간 기준을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하려 했지만, 대부분의 수업이 비대면으로 운영되면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이 회장은 "2학기부터 대면 강의 개수가 늘어나면 해당 공약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숙사 통금시간 완화' 공약은 기숙사 이용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한해 시간 제약 없이 기숙사를 오가며 공부할 수 있도록 통금 시간을 완화하는 내용이었으나, 정부의 방역 지침으로 밤 10시 이후 학생들이 공부할 외부 공간이 사라져 이행되지 못했다. 이 회장은 "기말고사 기간에 진행할 계획은 있지만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성청원 개설' 공약도 본교의 3주기 평가 준비와 홈페이지 개편으로 인해 개설이 미뤄졌다. '한성청원'은 학생이 학교에 민원을 직접 건의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민원서비스인 'Hello, Mr. President'제도가 소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 담당 부서의 답변을 받지 못하면 학생회 차원에서 직접 담당자에게 연계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총학은 현재 교내 홈페이지에 한성청원 시스템을 추가하도록 본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학생회 회의내용 주기적 공지' 공약은 이행 불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회장은 "모든 회의에서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게 아니다 보니 모든 회의를 공지하면 불필요한 내용이 공개돼 오히려 학우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중요한 사안은 공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 상상빌리지 지하 방역, 이대로 문제 없나

최근 상상빌리지(이하 상빌) 거주 학생들 사이에서 지하 공용 공간(이하 공용공간) 방역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용공간의 출입 통제와 시설 내 방역 수칙 감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상빌 행정실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없다며 필요하다면 방역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빌 공용공간 방역 대책으로는 ▲상빌 1층 출입 시 발열체크 진행 ▲감염 예방 홍보물 부착 및 방역 물품 마련 ▲방역 수칙 위반 감시를 담당하는 근로·상점 활동 학생 배치 등이 시행되고 있다. 또한 매주 목요일 공용공간 소독, 확진자 및 접촉자 동선 소독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교내 구성원 전원 출입 가능한 상빌 지하 1·2층에서 출입 시 발열체크가 진행되지 않았고 근로·상점 활동 학생을 일부 시설에만 배치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휴게실에서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빌에 거주 중인 김준원(인문 2) 학생은 "실제로 코로나19 의심자가 지하 공용 시설에 방문한 적도 있다. 그런데도 출입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역이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맞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나현(ICT 1) 학생은 "지하에 5인 이상이 모여 마스크를 쓰지 않고 떠돌거나

식사를 한다는 목격담이 종종 들려온다.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상빌 행정실은 이에 대해 별도의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임진경(행정복지사 유한회사) 행정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공용공간 내 일부 시설 이용자를 상빌 거주 학생으로 제한했다. 때문에 유동인구가 줄어든 상황"이라며, "아직까지 방역 관련 민원은 없다. 추후 필요하다면 상빌 거주 학생 외 학내 구성원의 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출입까지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한석 기자 hanseok@hansung.ac.kr

## 'VR/AR 전문가 양성 온라인 교육 특강' 수강생 모집

창의융합교육원에서 'VR/AR 전문가 양성 온라인 교육 특강' 수강생을 모집한다. 본 특강은 재학생의 가상·증강현실에 대한 지식 확장과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기획됐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18일까지이며, 6월 19일까지 수강할 수 있다.

특강 내용은 가상·증강현실이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사례 및 미래 산업 변화의 대응 방식을 주로 한다. 강의 주제는 ▲5G 기반 VR·AR 콘텐츠 현황 및 미래 전망 ▲Pandemic 시대의 VR·AR의 역할 ▲융복합 미디어와 인터랙티브 기술의 활용 등 총 세 가지다. 주제 하나 당 하나의 강의로 이뤄져 있으며 강의는 개수 제한 없이 선택 가능하다.

한편, 본교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 인원 제한은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수강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모집공고는 본교 공식 홈페이지 내 비교과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강생은 강의 하나를 수강 완료할 때마다 비교과 포인트 10pt를 받을 수 있다. 단, 작년 2학기에 진행된 'VR/AR 콘텐츠 레벨업(LEVEL UP) 세미나' 수료생은 비교과 포인트 지급이 불가하다.

신상기(C&C 교육지원팀) 연구원은 "많은 학생이 이번 특강을 통해 전공과 상관없이 4차 산업 핵심 기술 분야인 VR/AR에 흥미를 갖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논은 기자 non@hansung.ac.kr

## '저자와의 만남' 특강 개최돼

지난 5월 11일, 상상관 203호에서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저자인 이도우 작가와 함께하는 '저자와의 만남' 특강이 열렸다. 특강은 '스마트폰과 코로나의 시대, 대학생의 독서'를 주제로 했다. 본 특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사전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중계가 이뤄졌다. 진행은 ▲개회사 ▲강연 ▲질의응답 ▲리뷰 작성 안내 및 도서 증정 이벤트 순으로 이뤄졌다.

행사에 초청된 이도우 작가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외에도 '밤은 이야기가 좋은 시간 아니까요', '사서함 11호의 우편물' 등 도서를 출간했다. 이 작가는 "스마트폰 이용 시간 증가로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는 상황이 우려된다"며, "책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독서량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강담비(패션 3) 학생은 "남이 추천해주는 대로 읽기보다는 스스로 책을 찾아보면서 자신의 취향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후기를 작성한 참가자에게는 비교과 포인트 10pt가 지급된다. 또 추첨을 통해 오프라인 특강 참가자 10명과 실시간 중계 참가자 20명에게 저자 친필 사인 도서가 배부됐다.

이영원(학술정보관) 팀원은 "특강에서 평소 쉽게 만날 수 없는 작가와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박성희 기자 monica6610@naver.com

## IPP 9월 실습생 모집 예정

본교 IPP사업단에서 오는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IPP 장기현장실습'의 9월 실습생을 모집한다. IPP 장기현장실습은 본교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기업 인턴제도다. 9월 실습에는 현대백화점, 데스엠씨그룹, 유니다스 등 총 10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실습생은 4개월 동안 배정된 기업에서 근무하게 된다. 참여기업은 추후 더 추가될 수 있다.

선발은 ▲서류심사 ▲지원기업 배정 ▲오리엔테이션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실습 참여기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IPP입사지원서 특강을 필수 시청한 후 학과장 승인을 받은 입사지원서를 IPP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서류 합격자에 한해 지원기업이 배정되며,

해당 기업 오리엔테이션 및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된다.

참여자에게는 4개월 근무 시 한 학기 최대 15학점이 인정될 예정이다. 17학년 이전 지원자는 ▲전공선택 최대 12학점 ▲일반선택 최대 3학점이 인정되며, 17학년 이후 참여자는 ▲전공필수 최대 6학점(트랙별 3학점) ▲전공선택 최대 6학점 ▲일반선택 최대 3학점이 인정된다. 또한, 최저임금에 준하는 실습수당과 비교과 포인트 100pt가 지급될 예정이다.

손병호(IPP사업단) 팀장은 "IPP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해 현장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바란다"며 학생들 참여를 독려했다.

박성희 기자 monica6610@naver.com

hansungnews



한성대신문  
키키오토크로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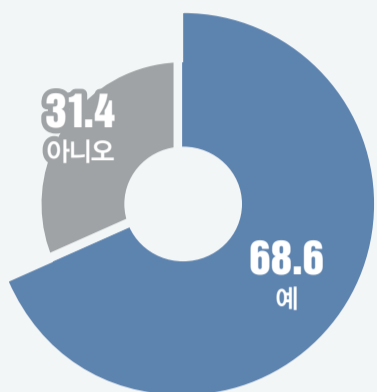
# 코로나19가 집어삼킨 청년, 마음에도 백신이 필요하다

## 코로나19 학생 마음건강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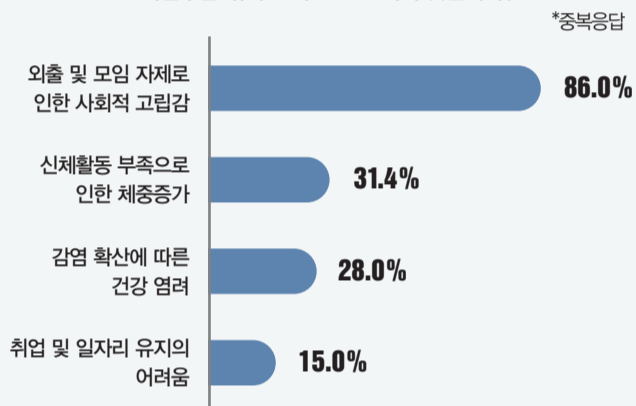
\*본 설문지의 표본은 873명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309명, 2학년 179명, 3학년 221명, 4학년 이상 164명이 응답했습니다.  
\*본 그래프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입니다.

### 코로나블루 실태조사

Q. 코로나블루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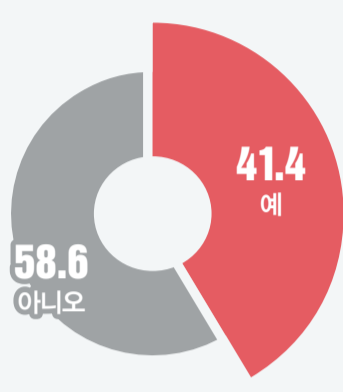


Q. 코로나블루를 겪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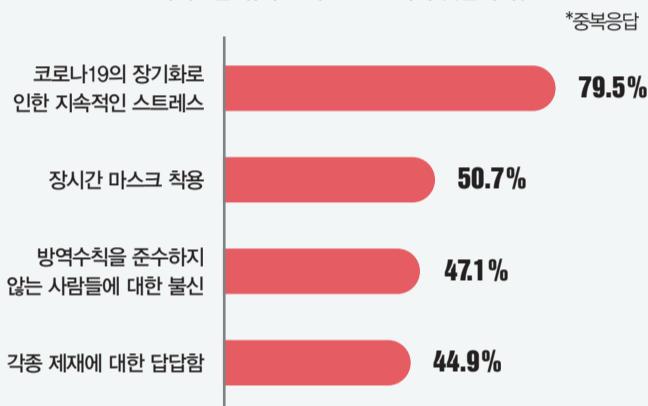


### 코로나레드 실태조사

Q. 코로나레드를 경험한 적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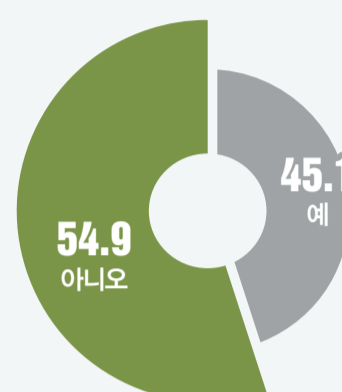


Q. 코로나레드를 겪게 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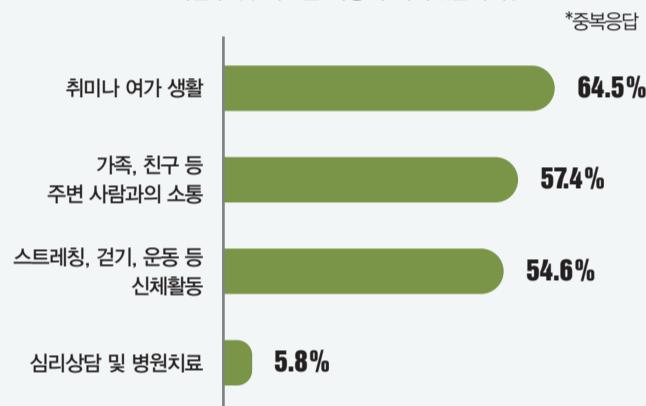


### 코로나블루 및 레드 해를 풀기 위한 대처

Q. 코로나블루 및 레드로 인한 우울, 불안, 무력감, 짜증, 분노 등의 감정을 느끼고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Q. 코로나블루 및 레드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이를 지칭하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코로나'와 우울을 뜻하는 '블루(blue)'가 합쳐진 '코로나블루'가 그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느끼는 우울이나 무기력증을 말한다. 이외에도 짜증과 분노를 경험하는 '코로나레드'와 절망감을 느끼는 '코로나블랙'이라는 표현도 나타났다. 모두가 코로나19로 심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20대 청년의 마음건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본지는 본교 학생의 마음건강 실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다.

**파랗게 얼룩진 우리의 일상**  
본지가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본교 재학생 8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학생 마음건강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과반수가 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무기력감을 느끼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코로나블루를 경험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599명(68.6%)이 '예'에 답했다. 코로나블루를 경험한 학생들은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86.0%)'을 가장 큰 원인으로 뽑았다.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한 체중 증가(31.4%)',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28.0%)', '취업 및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15.0%)'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활동 제한으로 단조로운 일상의 반복, 유학 및 여행 계획 취소 등으로 코로나블루를

경험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코로나레드를 경험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361명(41.4%)이 '예'에 답했다. 코로나레드의 주요 원인으로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지속적인 스트레스(79.5%)'가 가장 많았으며, 뒤이어 '장시간 마스크 착용(50.7%)',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불신(47.1%)', '각종 제재에 대한 답답함(44.9%)'이 나타났다.

코로나블루와 코로나레드 외 코로나블랙을 경험했다는 학생도 있었다. 이지현(사회과학 1) 학생은 "코로나19로 인해 대외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았고, 계획도 다수 틀어져 미래가 암담하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명의 한 학생은 "입시를 끝내고 대학에 입학했지만 이전과 별다른 것 없는 생활을 보내니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다"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다"고 답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건강 악화에 대처했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479명(54.9%)이 '아니오'에 응했다. 학생들은 대처할 방법을 모르거나 의욕이 없었음을 이유로 꼽았다. 김윤우(IT 1) 학생은 "코로나19 이후 획일적인 일상이 반복돼 지쳤다"며, "우울이나 무기력한 감정에 대처하고 싶어도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했다"고 전했다.

### 코로나19로 병든 청년 마음

20대 청년의 마음건강 악화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20대 청년 중 우울증 환자는 2016년 약 6만 4천 명으로 전체 우울증 환자의 10%지만, 매년 1~2만 명씩 증가해 2019년에는 약 12만 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 연령 중

가장 높은 증가세다. 당시 청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반복되는 취업 실패 등을 이유로 꼽으며 우울감을 호소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섬에 따라 청년 마음건강은 더욱 악화됐다. 2020년 20대 청년 우울증 환자 수는 약 15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체 우울증 환자 중 18%다.

대표적인 원인으로서는 사람 간 접촉·교류 감소가 꼽히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 및 모임을 자제하고 자가격리 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4월 설문조사 기업 '엠브레인'이 진행한 '코로나19로 인한 생활패턴 변화 조사'에 따르면, 20대 청년이 집에서 보내는 평균 시간은 평일 1일 기준 15.1시간으로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길었다.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신체활동에도 제약이 생겼다. 대한반민체증 증가 현황 및 비판 인식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거의 운동하지 않았다는 사람은 전년 대비 14%p가 증가한 32%였다. 20대 응답자 중 48%는 체중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문정순(송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신체활동을 통해 정신건강을 유지하는데, 청년은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져 충분히 몸을 움직이기 어렵다"며, "신체활동 부족은 심각한 우울증을 야기하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설상가상으로 높아진 취업 문턱은 청년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2021년 1월 기준 취업자는 약 2,581만 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약 98만 명이 감소했고, 실업자는 전년 동월 약 41만 명에서 157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정민(한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심각한 취업난은 청년의 불안이나 우울을 크게 증가시킬 수 있다"며,

"이는 단기적인 심리적 위축이나 기 능의 손상뿐만 아니라 주요 시기의 발달 과업을 충실히 이행하기 어렵게 하며, 개인적 손실과 더불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마음건강 회복은 시작이 반

청년들이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마음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건강 악화를 방지하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이 우울증과 자살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울증을 앓고 있는 집단의 자살률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약 3.8배 높았다.

코로나블루의 극복을 위한 '마음 백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 교수는 "규칙적인 운동, 독서 등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 성공경험을 쌓는 것이 마음건강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하다"며, "성공경험이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이 심리상담을 적극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김기환(서울디지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심리상담 과정에서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관계 형성 및 소통이 우울감 해소에 큰 역할을 한다"며, "특히 청년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의 보편화로 사람 간 교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심리상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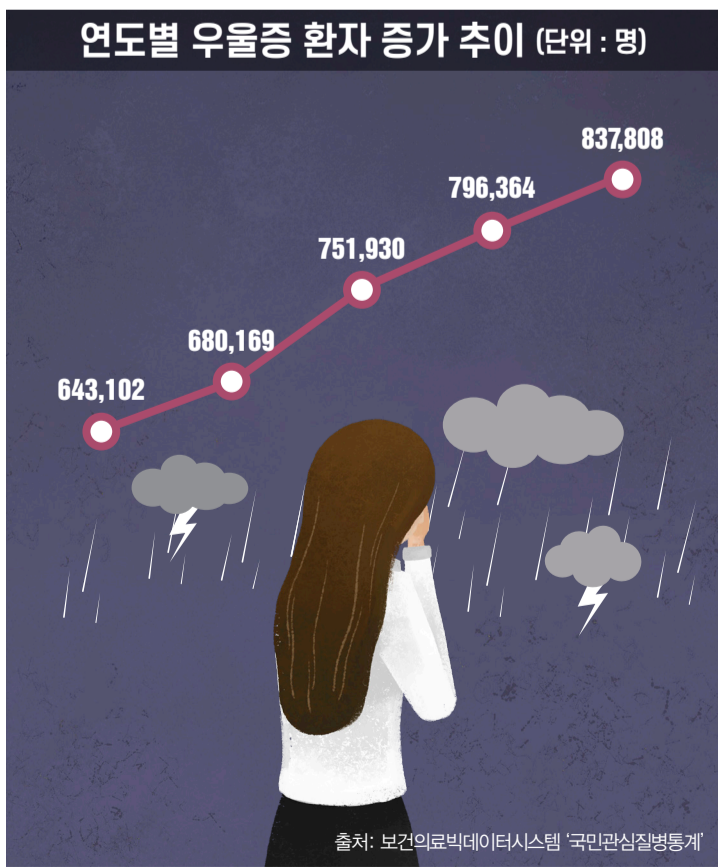
그러나 심리상담에 대한 청년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되는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873명 중 848명(97.1%)이 '아니오'에 답했다. 그 이유(중복응답)로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의 존재를 몰랐다(76.6%)',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25.6%)',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이 마음건강 악화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15.1%)' 등을 꼽았다. 이 교수는 "예방과 적절한 상담 및 치료를 통해 긍정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3월, 제123회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의결된 『청년의 삶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20대, 30대 정신건강 검사 주기를 조정해 자유롭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 정신건강과 관련한 올바른 정보 제공과 단계를, 대상별 심리지원서비스를 확대한 '코로나19 통합 심리지원단'을 작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코로나블루라는 악재를 타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정부의 심리 지원 정책은 획일적인 부분이 있다"며,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개인이 다양한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넓혀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지혜(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예방팀) 팀장은 "청년에게 마음건강뿐만 아니라 주거·경제·학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이 이뤄진다면 더 건강하고 안정적인 시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복탄력성(resilience): 역경이나 고난, 실패 등 부정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되찾는 성질이나 능력





# 연극계는 지금 관객과 거리두기 중



**청년이 묻고 현장이 답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 그의 문제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게 묻는 것보다 그가 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지 않던가. 종이에 적힌 자료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현실적이다. 나를 그로 바꾸기 위해 신문사 밖으로 향한다.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생생한 문제를 발견하기 위해.

연극의 메카라고 불리는 대학로 연극거리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여파로 조용해졌는지 오래다. 공연장에는 관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졌고 배우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코로나19 이후 연극배우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공연계의 현황을 가까이서 알아보기 위해 김중훈 배우의 하루를 밀착 취재 해봤다.

김자윤 기자 jizhey@naver.com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 팅 빈 연극거리

오후 12시 37분. 김중훈 (28) 배우는 출근을 하기 위해 송내역 2번 출구로 발길을 재촉한다. 그렇게 1시간동안 지하철에 몸을 맡기면 어느덧 혜화역에 도착한다. 혜화역 1번 출구로 온 김 씨는 공연장 '아트포레스트'로 향한다. 아트포레스트는 혜화역 주변 '대학로 연극거리'에 위치해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많은 사람이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거리에서 긴 줄을 서야 했지만, 현재는 연극을 관람하기 위해 대기하는 인파를 찾아볼 수 없다.

공연장으로 향하는 김 씨의 눈에 거리 곳곳에 붙여진 옥탑방 고양이, 스위치, 운빨 로맨스 등 여러 연극 포스터가 들어온다. 색색의 포스터와는 달리 창 너머로 보이는 공연장 내부는 어두컴컴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 일시 중단' 안내 종이와 함께 서터가 내려간 곳도 있다. 불이 꺼진 한낮의 공연장을 보며, 김 씨는 공연을 하지 못하고 있는 후배나 동료 배우들을 떠올린다. 공연이 적어져 오디션 기회를 얻지 못한 동료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와 연극 준비를 병행하기도 한다.

김 씨는 마음이 불안해진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김 씨는 평일에는 두 번, 주말에는 네 번 정도 무대에 올랐다. 그러나 요즘은 하루 한 번도 무대에 오르기 힘든 상황이다. 하나의 공연을 위해 한 달에서 두 달의 시간을 연습하지만, 그나마 잡힌 공연도 언제 취소되거나 연기될지 모른다. 연습한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온라인으로도 공연 결과를 보여줬으면 하는 것이 김 씨의 바람이다.

## 달라진 공연준비

공연 전, 김 씨는 점심을 포장하기 위해 근처 음식점으로 이동한다. 과거에는 동료 배우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이 소소한 행복이었지만 이제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이하 방역지침)으로 인해 음식점 안에서 다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없다.

오후 4시, 공연 시작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았다. 김 씨와 동료 배우들이 대기실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쟁긴다. 음향과 조명을 담당하는 오퍼레이터는 소독약을 꺼내 들고 공연장 전체에 뿌린다. 공연장은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강한 소독약을 사용한다. 바로 리허설을 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김 씨는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소독약의 독한 냄새에 코와 목이 괴롭다. 목소리가 중요한 직업인데 기관지에 해를 입지는 않을까 한 편으로 걱정도 된다.

공연 시작 15분 전, 김 씨는 공연 준비를 위해 대기실로 들어간다. 관객들이 QR 체크인과 체온 측정, 손 소독을 진행한 후 공연장에 입장한다.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좌석조차 채워지지 않아요”**



▲배우가 코로나19 여파로 사람이 줄어든 대학로 거리를 바라보고 있다.



▲방역이 끝난 무대 위에서 대본을 검토하는 배우의 모습이다.

## 소통이 줄어든 공연

오후 5시, 김 씨는 동료배우 3명과 무대에 오른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공연장을 찾아준 관객에게 고마움을 느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다짐한다. 공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총 세 명의 관객이 이벤트에 참여한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편이다. 김 씨는 이벤트 당첨자 한 명을 뽑았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서 누가 당첨자인지 알 수 없는 김 씨는 혼란스럽다. 이때 한 여자가 손을 들고 본인이라 말할 한다. 김 씨는 안도하며 선물을 건넨다.

공연이 시작되고 김 씨는 관객에게 연기를 선보인다. 방역지침 때문에 군데군데 비어 있는 좌석이 눈에 띈다. 관객의 호응은 예전 같지 않다. 방역을 위해 비워둔 맨 앞줄로 인해 관객과의 거리는 더욱 멀게 느껴진다.

김 씨가 공연하는 아트포레스트 공연장의 관객석은 총 200석이지만 오늘 공연을 찾아온 관객은 총 56명뿐이다. 평일에는 평균 150석 이상, 주말 및 공휴일에는 200석 모두 매진되던 공연이었다. 이제는 관객으로 가득한 공연장을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 아쉽기만 하다.

관객의 표정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얼굴을 다 가린 마스크 때문에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공연을 하는 내내 자신의 연기가 관객에게 잘 전달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김 씨의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피어오른다. 호응을 유도하고 싶지만 얼마 전 공연 리뷰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관객에게 큰 환호와 박수를 너무 자주 유도한다는 지적을 받아 조심스러운 마음이 앞선다.

공연이 끝난 뒤, 관객이 공연장을 빠져나간다. 예전에는 공연이 끝나고 관객에게 떡볶이를 나눠줬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제공할 수 없게 되면서 관객은 모두 빈손으로 공연장을 나간다. 김 씨는 관객에게 좋은 추억거리를 제공하지 못해 속상하다. 공연장이 점점 조용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객의 소리가 끊긴다. 텅 빈 공연장을 바라보며 김 씨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끝나 제대로 된 공연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한다.

# 작아진 박수소리, 한숨짓는 공연계

지난해 14년간 운영됐던 라이브 공연장인 '브이홀'이 폐업을 결정했다. 그 뒤를 이어 '나무와 물' 예술극장도 2003년 개관한 이후 18년 만에 문을 닫았다. 이외에도 공연계에 상징적인 공연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공연계에 유독 혹독했다. 공연계는 기약 없는 공연 중단으로 재정난에 시달려야 했다. 실제로 예술경영지원센터가 발표한 「코로나19에 의한 공연예술분야 피해현황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연 시설 및 단체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는 39.6%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칼바람 맞은 공연계

코로나19로 공연계는 보릿고개를 넘고 있다. 콘서트는 물론 뮤지컬, 연극, 클래식 공연 등이 줄지어 취소와 연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계 현실은 수치로 확인된다. 최근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공연건수는 5,390건이다. 이는 2019년 9,574건과 비교할 때 44% 줄어든 수치다. 공연장을 찾는 관객 수도 크게 감소했다. 공연 예매 사이트 '인터파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공연 티켓 매출이 2017년 4,411억 원에서 2020년 1,303억 5,600만 원으로 급감했다.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이기 했지만 여전히 예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대안 없이 취소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조사한 「2020년 1~4월 사이에 취소·연기된 문화예술행사 규모」 자료에 의하면, ▲서울 1,614건 ▲경북 156건 ▲부산 150건 등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극단체 '극단배우들'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성원 배우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일정이 불규칙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극단체뿐만 아니라 뮤지컬, 영화 등 공연계 전체가 휘청이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문화예술분야 피해 추정」을 보면 공연예술분야는 약 1,967억 원, 시각예술분야는 약 678억 원으로 공연 및 시각예술분야에서 총 2,646억 원의 매출 피해가 발생했다.

## 팅 빈 객석

문제는 유독 공연계에만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 엄격하게 적

용된다는 점이다. 관객은 공연장의 세부지침에 따라 동반자와도 한 칸 혹은 두 칸씩 떨어져 앉아 공연을 봐야 했다. 엄격한 세부지침은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다. 좌석 가동률이 30%에도 미치지 못해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종신(광주연극협회) 사무처장은 "일행과도 거리두기를 해야 할 때는 공연장에 대략 10명 정도의 관람객만 있을 수 있었다. 당시 피해 금액은 상당했다"고 설명했다.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연계 종사자들은 지난 1월 '코로나피해대책마련 범관람문화계 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을 조직했다. 연대모임은 ▲문화산업에 기초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할 것 ▲창작자와 문화산업종사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좌석 70%까지 가동을 허용할 것 ▲퇴근 후 문화생활을 위해 운영시간 제약을 완화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중 매출과 직결되는 좌석 가동률 항목이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다. 공연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업계는 좌석 가동률 70%를 넘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연대모임을 비롯한 여러 예술단체가 공연장 내 감염률 0%를 근거로 세부지침 완화를 요청한 결과, 정부가 지난 2월에서야 '동반자는 함께 앉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완화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뮤지컬 등 공연계는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모임·행사'로 분류돼 100인 이상 모일 수 없어 여전히 100인 이상 관람하는 대중음악 공연은 취소·연기되는 실정이다.

일부 예술 단체는 떠나간 관객을 잡기 위해 온·오프라인 공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예술의 전당은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연극 〈늬은 부부이야기〉를 영화로 제작한 뒤 IPTV와 OTT 서비스로 제공했다. EMK 뮤지컬컴퍼니 제작사도 창작 뮤지컬 〈엑스 칼리버〉를 온라인으로 중계했다.

대규모 예술단체는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지만 소규모 예술단체는 이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박 대표는 "온·오프라인 공연을 동시에 진행하면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재정 부족으로 줄줄이 폐업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공연 병행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라며, "실행에



옮긴다 해도 연극을 영화보다 질 높은 영상으로 제작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 유명무실한 지원 제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일부 예술단체는 공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예술인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예술인 지원금), 생활안정자금대출, 2021년 코로나19 특별용자 등이 그것이다. 그중 각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지급하는 예술인 지원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공연계 종사자들은 예술인 지원금이 유명무실한 제도였다고 입을 모았다. 제도에 빈틈이 많아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은 이들이 적다는 것이다. 예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서(이하 증명서)를 필수 제출해야 한다. 이때문에 증명서 발급 신청자가 단 시간에 몰리면서 발급까지 10주에서 15주가 소요됐다. 문제는 예술인 지원금 신청 기간이 대부분 2주였다.

증명서 발급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코로나19 이전에는 한 달이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었는데, 예술인 지원금 정책으로 인해 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발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영 연출가는 "업무량이 증가해 일처리가 지연됐다면, 일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배치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증명서 대신 다른 인증 수단을 마련하는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어야 했다"고 역설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창작준비금과 예술인 지원금의 중복 신청을 제한한 것도 지적됐다. 창작준비금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제공하는 지원금 제도로,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박 배우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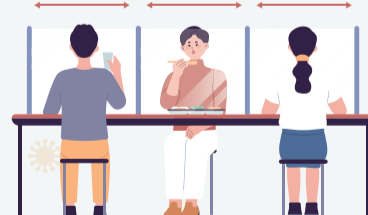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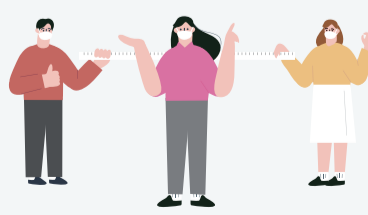
때문에 우리 극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든 배우가 예술인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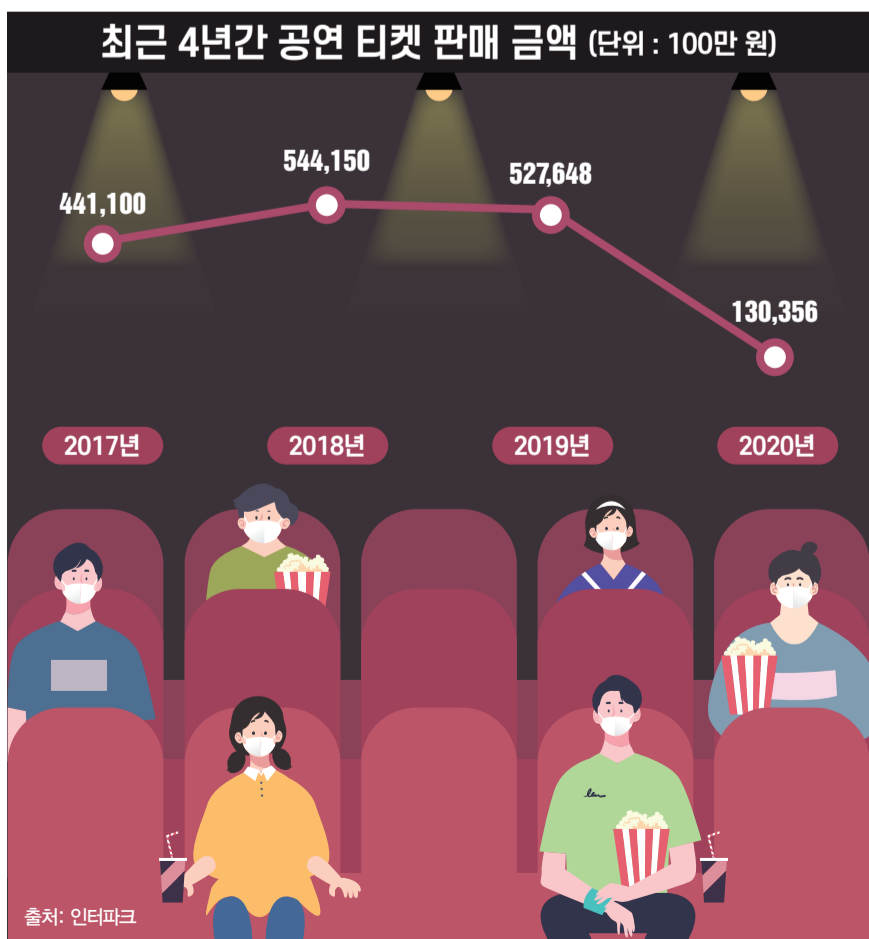
공연계 종사자들은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 처장은 "공연장 대관료는 전액 완납이 원칙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이전보다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극장이 위기에 빠졌다"

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대관료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연출가는 "많은 예술인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여러 지원이 현실적으로 공연계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선 공연계 현장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 정부의 거리두기 세부 지침

<p><b>2·2.5단계</b></p> <p></p> <p>취식 금지 및 동반자 외 거리두기</p>	<p><b>2·2.5단계</b></p> <p>22:00 CLOSED</p> <p></p> <p>컨막이 설치 및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p>
<p><b>3단계</b></p> <p></p> <p>집합금지</p> <p>▲공연장 방역지침</p>	<p><b>3단계</b></p> <p></p> <p>8㎡당 1명 인원 제한 추가</p> <p>▲음식점 세부지침</p>



# 한성대신문 제15회

# 사진공모전

최우수



과거와 현재 이승준(사회과학 1)

잠실의 과거 대표 상징물이었던 롯데월드와, 오늘 날의 잠실은 물론 서울의 대표 랜드마크인 롯데월드타워가 공존하는 석촌호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최우수작 수상소감

## 먼 곳에 있지 않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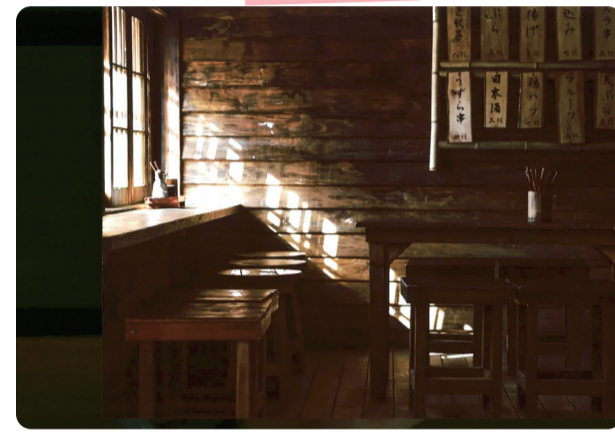
평소 사진 촬영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여행지를 가도 스스로 사진을 찍은 적이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사진 찍을 시간에 눈으로 담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진에 관심이 간 것은 올해부터입니다. 입시를 마치고 대학생이 된 기념으로 가장 최신 기종의 스마트폰을 구매하면서, 눈으로만 담아온 것들을 사진으로 담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의 뛰어난 성능은 고가의 카메라를 사용해야만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제 생각을 완전히 부숴줬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진을 촬영해 이번 출품작과 같은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촬영할 당시만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번 사진공모전을 준비하면서 그간 찍어뒀던 사진을 보면, 해당 사진에서 문득 이전 잠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있어 잠실은 롯데월드입니다. 요즘 초등학교, 중학생은 '잠실'하면 롯데월드보다 롯데월드타워를 떠올립니다.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생각의 차이가 새로운 감화로 다가왔습니다.

기존 사진 촬영을 좋아하지 않던 저는 성인이 된 지금, 사진에 흥미를 느끼고 여러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촬영은 고가의 장비 없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가 됐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잠시 멈춰 기록하고 싶은 순간을 카메라에 한 두 번씩 담아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이런 뜻깊은 상을 주신 한성대신문사에 감사 인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작품들



빈 자리 김세훈(공학교육개발센터)



휴식 이상훈(IC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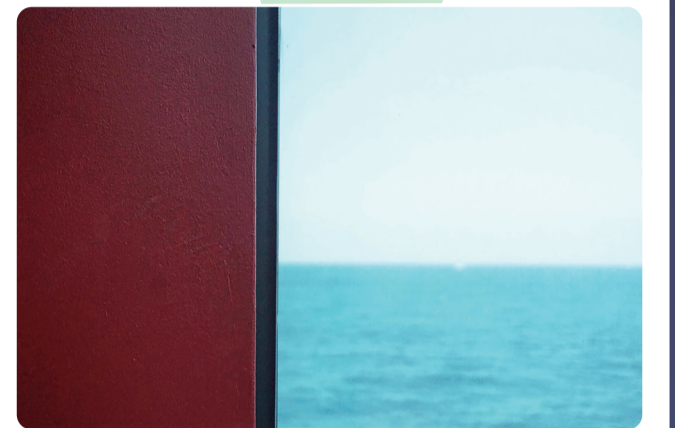


그림 사진? 김종윤(ICT 2)



춤 Epilog 이새봄(무용 4)



빛과 글 김한나(인문 3)

가작 수상소감

## 사진의 의미

〈사이〉라는 작품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담아낸 순간 중 한 장면입니다. 이 작품을 사진으로 담아낸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평범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머리를 식히다가, 마침 눈길이 닿은 곳에 놓인 화분을 사진으로 담아낸 것입니다. 다만 저 는 그 화분을 보며 속에 담겨있는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화분끼리 마주 보는 듯한 상황이 '우리 사이의 관계'라고 생각해보면 재밌겠다 느꼈습니다. 만약 우리가 처음 보는 어색한 사이거나 사람을 나누는 사이라면, 혹은 그 거리 속에 절대 만날 수 없는 사이라면 생길 모든 상황이 상상되면서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화분에 다른 의미를 부여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소한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세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별게 아닌 것에도 관심을 갖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이 삶을 조금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는 사진찍는 행위가 아주 고맙게 느껴집니다. 셔터를 누르는 아주 쉬운 행위만으로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으며 나 자신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제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생각이 많았는데, 모처럼 일상의 기회를 얻게 돼 남들에게 제 감성을 인정받는 것 같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립 내서 사진 활동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제 사진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평범해 보이는 일상 한 순간 한 순간이 모두 멋진 작품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 조영호(IT 3)

멀어진 우리 관계 속에서 놓치고 있는 무언가를 카페에 무심코 놓여 있는 화분을 통해 표현했습니다.

가작

심사평



심사위원 배택수 사진작가

약력

- 미국 Stanton Univ 미술학과(사진) 초빙교수
- 서울교육대학교 사진이카데미 교수
- 한국사진방송 작품심사위원장 및 작품연구소 지도교수
- 한국사진작가협회 상임이사, 전문위원, 사진교육지도자, 전국사진강좌 전임강사, 촬영지도자
- 한국미술협회 문화예술협력위원회 이사
- 한국사진문화 콘텐츠 연구소 소장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진 전문위원
- 한국현대미술협회 운영위원
- 한국사진학회 정회원
- 한국미술이론학회 · 한국미학예술학회 정회원

한성대신문사가 주최하는 제15회 사진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출품해주신 학내 구성원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94점이 응모됐습니다. 평소 사진에 관심을 가진 순수 아마추어 학생이 대다수다 보니 미적 표현력과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우수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상의 내용을 담았던 시각으로 시도한 사진이 다수 출품돼 이 공모전의 앞날이 밝아 보였습니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상의 순간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카메라에 담아낼 때 일상은 예술이 되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선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사진 안에 담겨야 합니다. 사진 촬영은 원하는 구도나 피사체를 인위적으로 더하고 뺄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주어진 공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건물, 창문, 시간 등을 프레임으로 활용해 사진 안에 넣어 주제를 강조

## 일상의 순간을 예술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테두리나 실내의 한 부분에 대비를 적용해서 관람자가 몰래 엿보듯 눈길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비중이 크고 높은 것을 원근감이 있게 전경에 배치하고 작고 가벼운 것을 중경·원경에 배치해, 3차원의 입체감을 준다면 주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창작 의도, 예술성, 창의성, 완성도를 고려해 출품작을 심사한 결과, 최우수작으로는 이승준(사회과학 1) 학생의 〈과거와 현재〉가, 가작으로는 조영호(기계 3) 학생의 〈사이〉가 선정됐습니다.

최우수작 〈과거와 현재〉는 잠실개발의 역사와 현재가 한 프레임 안에 구성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야경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상을 받았습니. 사진이 찍힌 순간, 사진 밖의 시간은 계속 흐르지만 사진 안의 시간은 그대로인 시간성이 담겼습니다. 주제-부제-배경의

물리적 프레임 안에 작가의 메시지가 담긴 심리적 프레임 함께 구성해, 시대를 조망하고 역사가 되는 시공간을 기록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가작 〈사이〉는 화분 간의 사이(거리), 화분과 건너편 건물 사람들과의 사이(거리)에 촬영 당시 작가의 느낌이 이입된 작품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피사체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자 표현한 것이 돋보였습니다.

그 밖의 작품 중 김세훈(공학교육개발센터) 연구원의 〈빈 자리〉, 이상훈(디자인 3) 학생의 〈휴식〉, 이새봄(무용 4) 학생의 〈춤 Epilog〉, 김종윤(ICT 2) 학생의 〈그림? 사진?〉, 김한나(인문 3) 학생의 〈빛과 글〉이 선정될 수 있었으나 한정된 수상작 수 때문에 아쉽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참가한 모든 응모자에게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다양한 경험과 의미를 담은 추억을 카메라에 담아 내린 제15회 사진공모전에서도 더 좋은 작품을 출품해주시길 바랍니다.



신 기자와 떠나는  
문화여행

요즘 넷플릭스나 왓챠 같은 OTT 서비스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똑같은 생각을 갖지 않는다. 작품의 온전한 의미는 보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해석은 여러분의 몫이다. 나만의 해석을 찾기 위해, 문화 여행을 떠난다.

우리는 정의를 선하다고 여긴다. '정의로운 사람'하면 타인에게 친절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을 떠올린다. 그리고 악한 사람은 당연히 정의롭지 못하리라 생각한다. 만약 악한 사람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과연 악인이 행하는 정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여행지는 악인이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세상이다.

신혜림 기자 hyerm126@hansung.ac.kr

# '악'이 행하는 '의'는 정의인가

한 남자가 계단을 걸어 올라간다. 남자의 발걸음은 테이블에 앉은 이탈리아인을 향한다. 남자는 보스의 명에 따라 그에게 빼앗은 농장을 내놓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남자의 제안을 거절하고 되려 '미개한 동양인'이라며 남자를 모욕한다.

남자는 뒤를 돌아 계단을 걸어 내려온다. 하늘을 올려다 본 남자의 시선 끝에는 경비행기가 있다. 비행기가 드넓은 농장 위로 기름을 뿌린다. '딸깍' 라이터 뚜껑을 여는 소리가 울려 퍼진다. 남자는 불붙은 라이터를 등 뒤로 던지고 유유히 저택을 걸어 나간다. 라이터의 불씨는 기름에 젖은 작물을 타고 삼시간에 농장 전

역으로 퍼져나간다. 사방을 뒤덮는 화염 사이로 남자를 태운 차가 빠져나온다. 남자는 드라마 <빈센조>의 주인공이다.

## 나쁜 놈 위에 더 나쁜 놈

드라마 <빈센조>에는 '절대 악'으로 분류되는 악인들이 등장한다. 그들은 건설, 제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갖 악행을 일삼는다.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물 강제로 철거하면서 건물 주민들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주민들의 반대로 건물 철거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가스 점검을 나온 척 건물을 방문해 가스를 누출시키고 폭탄을 설치하기도 한다.

또, 신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희생자를 위한 추모나 보상은 커녕 약품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은폐해 버린다. 그럼에도 그들은 법으로 처벌받지 않는다. 정의롭지 않은 법조인과 결탁해 법의 빈틈을 찾아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그 모습은 극중 등장인물들은 물론 드라마를 시청하는 사람들까지 분노하게 한다.

그때 남자가 등장한다. 남자는 악인들이 인체에 유해한 약품을 출시하려 하자 약품 저장 창고를 통째로 폭파시키고 제약 회사 회장의 별장에 들어가 살인 예고를 남긴다. 악인들의 마수가 남자의 주변인에게까지 미치지 그들의 집에 무단 침입해 손톱

을 뽑고, 불을 지르고, 머리에 총을 쏘 죽이는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남자는 '절대 악'의 무리에게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주고, 궁지에 몰아 전전히 죽음에 도달하게 한다. 법이 처벌하지 못한 악인들을 응징하는 남자의 모습은 시청자에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통쾌함을 선사한다.

## 히어로를 원한 사람들

남자는 '절대 악'의 무리와 적대관계를 형성하고 약자의 편에 선다. 그러나 남자는 그들에게 대항하는 수단으로 '선'이 아닌 '악'을 선택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의 처벌 방식은 더 잔인해진다. 중국에는 긴 창이 서서히 몸을 관통하는 장치에 악인을 넣어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이기까지 한다. 이같은 모습을 보면 남자는 폭력적이고 잔인무도한 사람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남자의 행동에서 통쾌함을 느끼는 걸까?

약자를 위하는 선한 마음과 악한 처벌방식. 드라마 <빈센조>의 남자는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 전형적 '다크히어로'의 면모를 보인다. 다크히어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슈퍼맨, 어벤저스 등 일반적인 히어로와 달리 오로지 '처벌' 자체에만 주목한다.

우리 학교 권상집(사회과학부) 교수는 "사회의 부조리가 심해지면 그로 인해 대중이 받는 사회적 스트레스가 누적된다. 이때 다크히어로가 보여주는 강력한 처단과 응징은 현실 문제로 스트레스가 쌓인 대중에게 대리만족감을 준다"고 말했다.

우리는 드라마 속 악인들에게 현대 사회의 부조리를 투영한다. 최순실 게이트부터 LH 사태까지 검찰 및 정·재계 인사의 부패로 사회 질서가 무너지는 일이 현실에서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처벌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이같은 현실을 생각하면 악의 무리를 처벌하는 '다크히어로'인 남자를 '히어로'처럼 추앙하게 된다.

## 정의의 탈을 쓴 악

그렇다면, 남자의 행동을 '정의'라 할 수 있을까? 사전에서는 정의를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 혹은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로 규정한다. 누군가는 남자가 절대 악을 응징하고 사회 평화를 도모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을 정의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남자는 악인을 응징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양심은 물론이고 사회 규범까지 무시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시민이 범죄자를 직접 응징하기 위한 현실판 다크히어로가 등장한 사례가 있다.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다. 법이 사회악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니 대중이 사회적 심판을 가해 정의를 구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발생 후 디지털 교도소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유튜버가 알고보니 실제 가해자와 동명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 제보에 속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한 것이다. 정의를 빙자한 보복이 만든 단편적인 예다.



▲자신을 해치러 온 악인들을 싸죽인 남자



▲남자가 지른 불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악인



▲남자의 계약으로 돼지 피를 뒤집어쓴 악인

드라마 <빈센조> 속 남자도 법의 울타리를 벗어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려 한다. 그런 남자에게 드라마 속 악인은 "나를 죽이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오나? 사회적인 메시지가 되나? 그냥 쓰레기가 쓰레기 죽이는 게 된다"고 말한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틀린 구석은 없는 말이다. '괴물과 싸우기 위해 괴물이 되선 안 된다'라는 말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악을 처단하면 정의구현은 커녕 오히려 스스로가 더 큰 악으로 남는다. 의도가 선하든 악하든, 폭력 및 범죄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정의란 '개인의 선한 마음, 도덕성을 가지고 모두가 이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했다. 악인이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또 다른 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법의 질서를 다시 세우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 물가 오른 학점시장 안정화될 수 있을까

최근 대학가에서 A학점을 취득한 학생이 전체의 50%를 상회하면서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학점 인플레이션이란 말 그대로 높은 학점을 받는 학생이 늘어나 학점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해당 현상은 단편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에 유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 하지만 학점의 변별력과 신뢰도가 하락해 취업 및 진학에서 학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져 다른 스펙이 요구될 수 있다. 학생들이 높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음에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 뿌리 깊은 학점 인플레이션

학점 인플레이션은 과거부터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다.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1년 3월 발표한 「대학정보공시」에 따르면, 2009년 A학점을 취득한 재학생 비율은 전체의 38.3%로 꾸준히 상승했다. 대학은 높은 취업률을 위해 학점을 후하게 주고, 학생은 재수강과 학점포기제를 이용해 일명 '학점 세탁'을 한 결과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대학이 성적증명서를 열람용과 제출용(취업용)으로 구분해 발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은 제출용 성적증명서에 F학점·학점포기·재수강 및 이전과목 성적을 표기하지 않아, 학생의 취업을 위해 불공정행위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교육부가 각 대학에 학점포기제와 재수강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함에 따라, 대학들은 학점포기제를 축소·폐지하고 재수강 시 취득할 수 있는 최대 학점과 횟수를 제한했다. 그 결과 '환산점수' 80점 이상을 취득한 2013년도 졸업생은 91.1%였지만 2019년에는 89.9%로 하락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점 인플레이션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 「2021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 195개 4년제 대학에서 2020년 A학점을 취득한 재학생 비율은 54.7%로 2019년 33.7%보다 21%p 상승했다.

학점 인플레이션이 재발한 원인으로 완화된 평가 방식이 지목됐다. 지난해 3월 2일, 교육부가 코로나19 학사대책으로 마련한 「2020학년도 1학기 대학 학사운영 권고안」을 보면 담당 교원이 학생의 의견을 들어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학생들은 감염 우려로 대면 시험을 응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시험은 부정행위를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평가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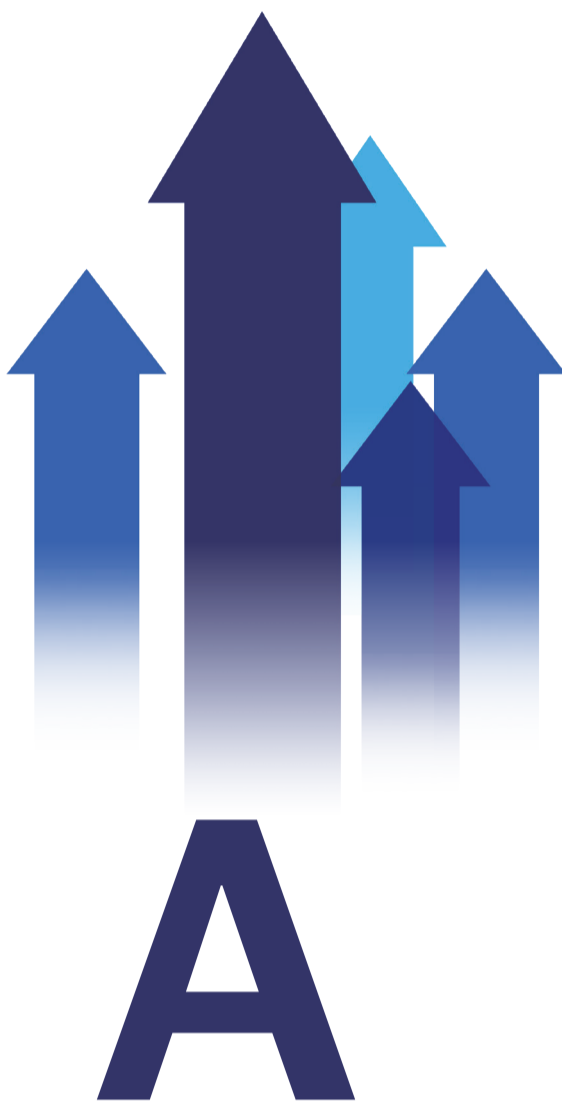
대부분의 대학은 절대평가 방식이나 기존 상대평가에서 A·B학점 비율을 증가시켜 완화된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했다. 일부 대학은 축소·폐지됐던 학점포기제를 부활시키거나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김한나(총신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학생의 어려움과 비대면 수업의 상황을 고려해 완화된 기준으로 평가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학점이 상향된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 A학점에도 웃지 못하는 학생

성적평가 방식이 완화됨에 따라 시험 난도는 낮아지고 시험이 과제물로 대체되면서 학생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김안나(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는 "교수가 학생의 성취도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못하면, 학생이 다음 단계를 학습하는데 지장이 생긴다"고 말했다.

성적우수장학금 관련 문제도 발생했다. 평균 성적이 상승하면서 기존 장학금 수혜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이 많아졌다. 일부 대학은 성적우수장학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했다. 실제로 중앙대학교는 성적변별력 하락과 코로나19특별장학금 재정 마련을 이유로 1학기 성적우수장학금 지급 비율을 상위 10% 이내에서 상위 3% 이내로 조정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이세은 학생은 "현재로서는 성적변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적우수장학금의 축소로 학생이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잃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학 간 학점 인플레이션의 차이도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알리미에서 공개한 2019년과 2020년의 '전공과목 성적 분포'에 따르면, 서울 소재 4년제 43개 대학 중 덕성여자대학교와 서울여자대학교의 경우 2020년 1·2학기 A학점 취득 학생 비율의 평균은 전년 대비 각각 42.5%p, 44.9%p가 증가했다. 반면 성균관대학교와 한양대학교는 각각 2.8%p, 4.1%p만 증가했다.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에 재학 중인 한서현 학생은 "우리 학교는 평균학점이 상향된 다른 학교에 비해



A학점 취득자가 적다"며, "취업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는 동안 대학을 다니지 않는 졸업자와 휴학생 같은 경우, 취업 및 전문대학원 진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학점 인플레이션 현상의 영향을 받은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기존의 상대평가에 비해 완화된 평가 방식으로 학점을 쉽게 얻은 학생들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준비하는 한 대학생은 "평가 방식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학점을 따기 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코로나19 이전에 취득한 학점이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학점 안정화를 위한 노력

학점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학점이 취업 및 진학에서 평가의 지표로 사용되지 못해 스펙경쟁이 더욱 과열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문가들은 평가의 신뢰도와 객관성을 확보해 학점의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안나 교수는

"학기 초에 교수는 학생이 이해하고 동의할 수 있는 명확한 교과 목표와 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비대면 수업의 질을 높여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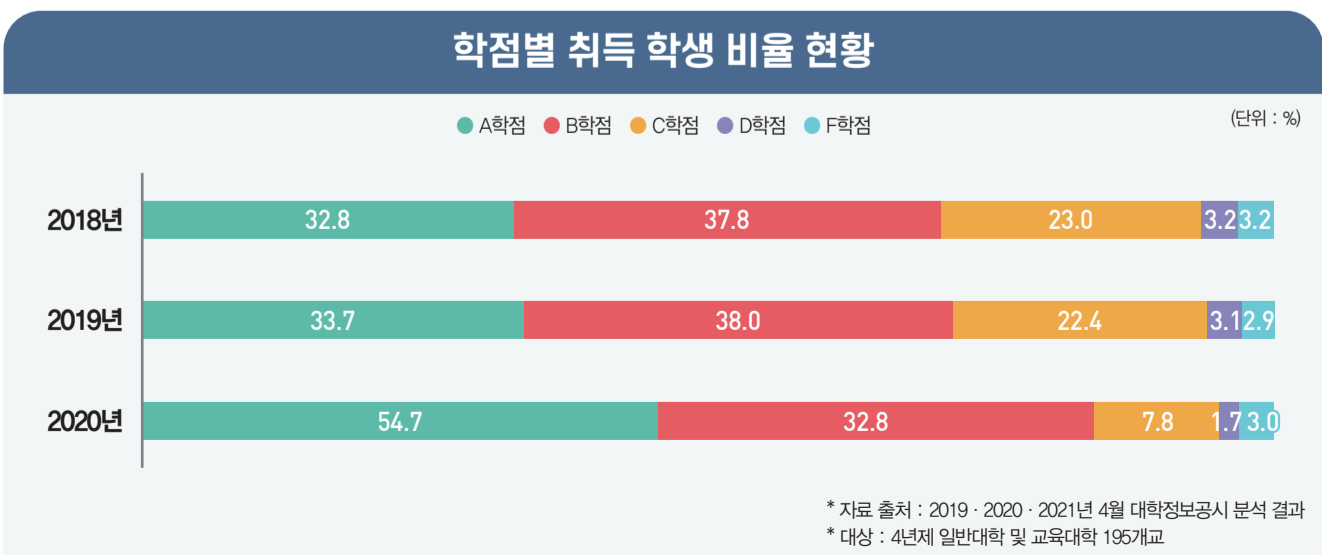
대학 역시 높아진 학점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지난해 1학기 서울 소재 4년제 43개 대학의 전공과목에서 A학점을 취득한 학생 비율의 평균은 63.5%에서 2학기에는 57.7%로 감소했다. 김안나 교수는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면서 경험이 축적됐다"며, "학점 인플레이션 대응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한나 교수는 "전면 비대면 수업으로 대학 수업이 이루어진 경우가 없었기에 보수적인 접근으로 대학 수업을 유지하기 급급했다"며,

"현재는 비대면 수업에 적합한 평가방식을 모색하는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지고 있다. 실력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산점수 : 졸업 평점평균을 백분율점수 평균으로 환산한 점수  
\*선택적 패스제 : 최종성적이 공지된 이후 학생이 일부 과목의 성적을 그대로 가져갈지 혹은 등급 표기 없이 패스(Pass)로 이수 여부만 표시할지 선택하는 제도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 대학 내 인권센터 의무화 첫 걸음 뗐지만 갈 길 멀어...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담은 개정안 신설돼

제 기능 가능한  
인권센터가 되기엔 여전히 미흡해

대학 내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다양한 학내 구성원 참여해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를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이하 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표발의자였던 서용교(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10인은 스쿨 미투(Me Too)가 본격화된 이후 교육기관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해 2020년 9월 28일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기구가 부재해 대학 내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비판했다.

실제로 작년 11월에 발표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서도, 대학생 1,852명 중 입학 후 최소 한 번이라도 인권침해 피해를 겪은 학생은 88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전체 대학 중 인권센터를 갖춘 곳은 283개의 대학(원)교 중 89개 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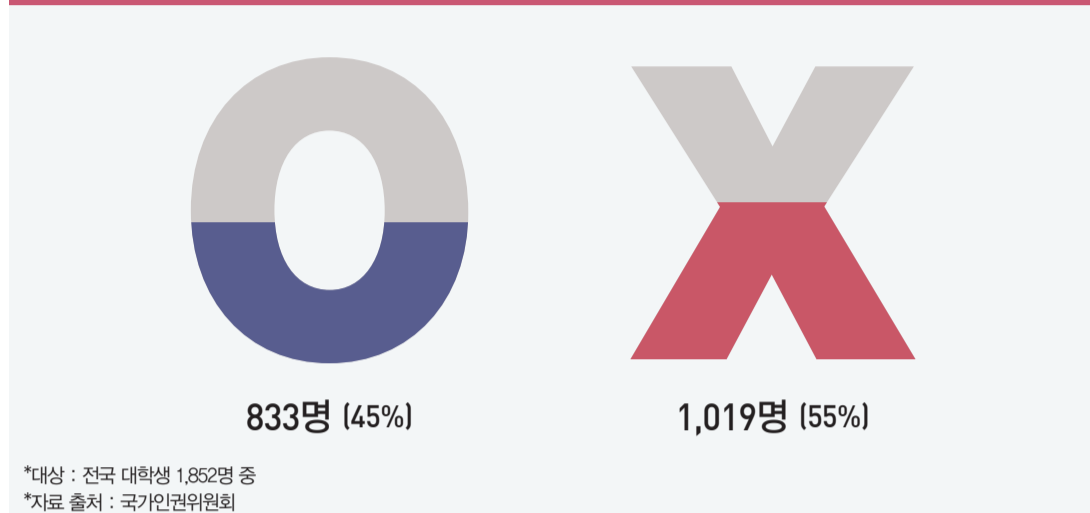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 내 인권센터가 설치·운영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은희(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은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로 인권교육 및 홍보를 통해 학내 구성원의 인권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를 밝혔다.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화 법적 근거 마련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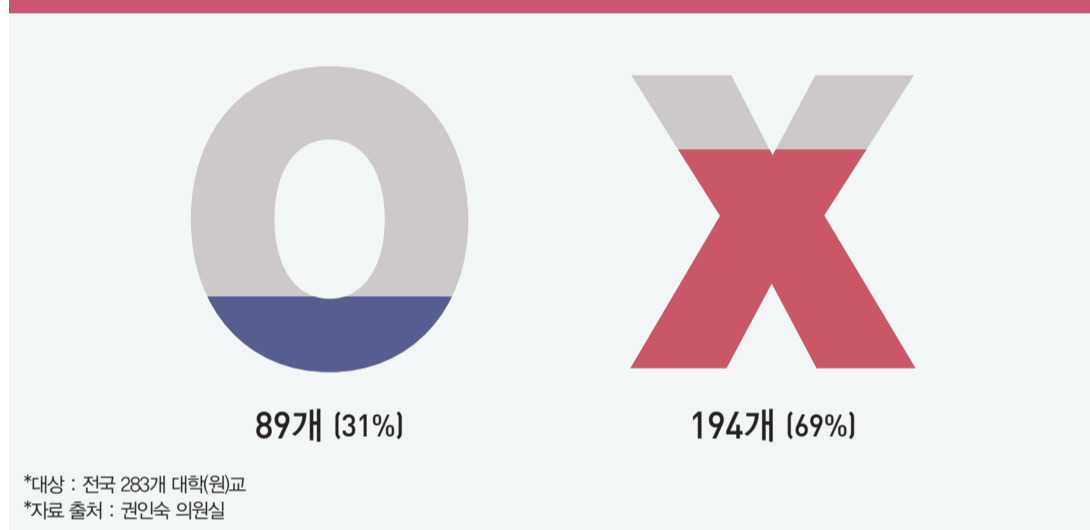
개정안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운영 의무화 ▲인권센터의 업무 범위에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제19조의3이 신설됐다.

제19조의3 제1항에는 ‘학교는 교직원, 학생 등 구성원

## 대학 입학 후 최소한 1회라도 인권침해를 겪은 학생 수



##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여부



의 인권보호 및 권익향상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에 근거해 의해 학내 구성원 인권침해의 사전 방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허은영(서울시립대 인권센터) 팀장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로 사건이 악화되기 전에 예방 및 재발방지, 조직문화 개선 등 2차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은 제19조의3 제2항에 의해, 향후 인권센터 운영 시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학내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 ▲그 밖에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는 인권센터 직원의 업무를 명시한 것으로, 체계적인 인권센터 운영을 위해 신설됐다. 허 팀장은 “인권센터는 인권침해나 인권감수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해,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뿐만 아니라 관행개선 등을 관리하고 있어 대학 내 인권침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 빈틈 보이는 인권센터 운영

개정안은 내년 3월 2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대학 내 인권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하려면 남은 1년 간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대학의 재정 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 대학 내 운영 중인 인권센터는 재정 부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학인권센터 62곳(4년제 60곳·전문대 2곳)에서는 대략 2~3명의 직원이 모든 학내 구성원의 인권을 관리하고 있다. 허 팀장은 “2명 남짓한 담당

자가 학내 모든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재발방지 조치, 후속관리, 문화사업, 홍보 등의 각종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절반 가량의 인권센터 직원이 불안정한 고용 형태로 전문성 부족 문제를 겪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전국의 대학에서 근무 중인 인권센터 직원 170명 중 88명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비정규직 계약 형태의 계약 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다. 짧은 기간 내 담당자가 바뀌면 인권침해 문제 발생시 사건의 후속관리는 더욱 어려워진다. 김 연구원은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될 경우 장기적인 비전을 설계하기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내 인권센터 독립성이 보장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성 보장은 피해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대학인권센터 62곳에 속한 98명의 응답자 중 ‘독립적인 업무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항목에 응답한 직원은 7명뿐이었다.

전문가들은 인권센터가 타 부서 산하 기구로 소속될 경우 사건 처리 보호 및 피해자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허 팀장은 “인권센터가 부속기관이 위치하게 되면 행정 편의상 장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건처리 과정에서 비밀유지 보장이 힘들어질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등에서 피해자·가해자·그 밖의 관련자들 모두의 신변보장, 객관적인 사건처리, 외압이 없는 신속한 사건처리 등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 진정한 인권 보호 위한 기구로 거듭나려면

인권센터 종사자들은 인권센터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연구원은 “재정 부족 문제가 지속될 경우 대학 내 인권센터의 본래 역할이나 기능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팀장은 “대학의 실정을 고려하되, 실질적인 인권옹호기구와 역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도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면서 대학이 인권기구의 역량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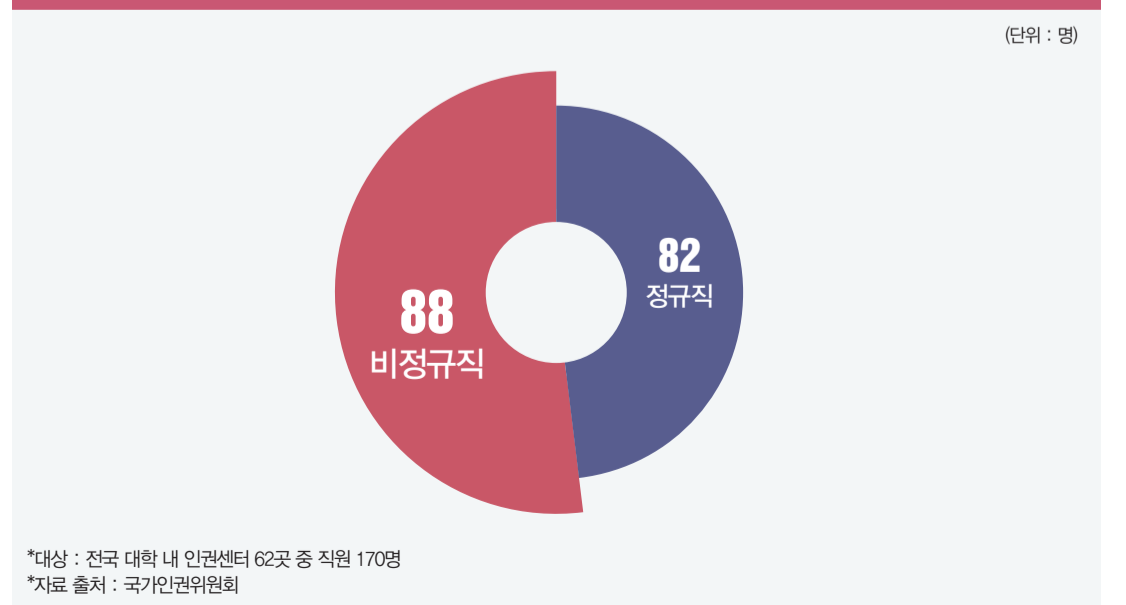
재정 문제로 인한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인력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허 팀장은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예방 교육 및 사건조사와 심의·의결처리 각각의 분야에 전문가들을 반 상근 형태로 파견하는 것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 내 인권센터 운영 시 운영위원회에 다양한 학내 구성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학생이 사건 당사자일 경우 학생의 직접 참여는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학생뿐만 아니라 학내 노동자, 조교 등 다양한 학내 구성원을 포함시키는 일은 당연한 당연한 것”이라며 “대학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하는 곳이 바로 인권센터다. 모든 학내 구성원이 회의에 참여해 대학에서 인권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 대학 내 인권센터 비정규직 직원 수



· 삼 학 송 ·

# 완전을 향한 동행

첫 기사 작성은 당혹감의 연속이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누군가와 인터뷰를 하는 상황 자체가 부담스러웠다. 어디에 연락하고, 처음 멘트는 뭐라 할지, 자연스럽게 답변을 유도하는 방법은 뭘지... 첫 취재원과 전화 한 통을 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화 버튼 하나 누르는 것이 그 당시에는 무겁게만 다가왔다. 한 학기 내내 인터뷰를 해야 한다 생각하니 걱정이 앞섰다.

걱정 많았던 필자는 기자로 1년 6개월을 보내고도 편집국장으로 1년을 더 보내게 됐다. 편집국장의 자리는 각오한 것보다 더 고달팠다. 내 기사만 신경 썼던 기자 시절과 달리 편집국장은 모든 기자의 기사를 신경써야 했다. 극히 평범한 실력이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신문사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다른 기자들의 기사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했다.

나와 비슷한 연령대 사람과 편집국장·기자의 관계로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매번 무언가를 결정하고 지시를 내릴 때는 마음 한편이 불안했다. 행여 오보가 나진 않을까, 독자들이 찾는 신문을 만들 수 있을까, 기자들이 취재 도중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내가 집단을 실수 없이 잘 이끌어나갈 수 있을까. 매일 수만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의심했던 시간 끝에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익숙한 것을 익숙하지 않게. 필자의 결론은 편집국장이자 독자가 되는 것이었다. 하루는 편집국장으로서 기자들과의 관계를 이어갔고 다른 날은 독자로서 기자들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기사를 취재하고 작성하는 데 능숙해질 순 있어도 완전해질 순 없었다. 완전했다고 생각한 취재에도 빈틈은 존재했

고,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논리에도 뚫릴 구멍은 있었다. 이전에 보고를 받아 알고 있는 내용이어도 처음 보는 것처럼 몇 번이고 다시 봤다. 각 주체의 입장, 기자의 생각뿐만 아니라 필자의 비판이 옳은지도 의심했다. 너무 많이 봐서,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편집국장이기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독자는 찾아낼 수 있었다.

완전을 향한 길 위에 선 필자 곁에 기자들이 함께 있었다. 필자는 어떤 아이템을 선정할지, 누구와 어떤 내용으로 취재할지, 기사는 어떤 방향으로 작성할지 등을 기자들과 공유하며, 열띤 대화를 나눴다. 혼자선 부족할 수밖에 없어 기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쌓으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필자는 이 지면을 끝으로 이제 한성대신문사 편집국장이 아닌 학생으로 돌아간다. 2년 6개월의 활동을 회고하며, 마무리를 준비할 때다. 그 술한 시간 동안 필자가 만든 신문이 완전함에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가늠할 수 없다. 다만 신문을 만들었던 기자들이 함께 있었기에 지치지 않고 완전함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은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다.

신문사는 끊임없이 흔들리며, 매번 변화를 맞이하는 곳이기엔 완전한 신문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과정은 결승선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 같아서 혼자 걸어가다간 중간에 지칠 수밖에 없다. 가다가 멈추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러나 고개를 돌리면 함께 길을 걸어가는 동료들이 있다. 때론 독자가 돼 논의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나아갈 때, 완전이라는 결승선이 가까워질 것이다. 필자가 그랬듯 말이다.

박희연 편집국장



5년 전, 꿈 많던 한 청년 노동자가 구의역 9-4 승강장 앞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중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감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스크린도어 작업은 2인 1조가 원칙이지만, 임주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허점을 악용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지난달 28일, '구의역 참사 5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산재사고 발생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중소규모사업장 처벌 규정이 미비해 또 다른 죽음이 예견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처벌 기준 강화가 아닌 실효성이다. 법안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행 전까지 실질적 개선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정은 기자

## ■ 기자수첩

한성대신문사에 입사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10년의 신문 발행을 거치며 기사 작성 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것은 바로 '사실 확인'이다. 취재 개시부터 조판 종료 시점까지 온 촉각을 세우며 사실 확인에 사력을 다하다가도, 취재원이 "제대로 알고 기사 쓰는 게 맞냐"고 비질 때마다 바닥에 떨어진 언론 신뢰도를 체감했다.

언론 신뢰도 문제는 언론이 등장한 순간부터 늘상 제기됐다. 그런데 최근 한국 언론 신뢰도 실태가 심상치 않다. 영국 옥스퍼드대학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주요 40개국 중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근래 언론은 무분별하게 기사를 복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그대로 보도한

## 투명하게 담아내는 거울이 되어

다.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헤드를 앞세운 기사도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터넷 신문사가 등장하면서 언론사의 수가 급증해, 이들 간의 경쟁이 갈수록 심해졌기 때문이다. 언론사의 수입과 직결되는 기사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속보·특종을 내야 한다는 압박에 많은 기자들은 사실 확인 과정 없이 기사를 보도했다.

언론은 그 사회를 비추는 '거울'과도 같아서 우리 사회의 민낯을 거르지 않고 담아낸다. 거울이 제 기능을 못하면 정보는 왜곡되거나 감춰진다.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언론은 힘을 잃는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게 하기 때문이다. 힘을 잃은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를 수호하지 못한다. 따라서 언론 신뢰도가 낮은 사회는 필연적으로 퇴보할 수밖에 없다.

언론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방법은 단 하나다. 지난날의 과오를 인정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속보·특종 경쟁에서 벗어나 사실 확인에 힘써야 한다. 시민이 언론을 신뢰해야 언론의 기능은 살아나고, 언론이 제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진실이 빛을 발할 수 있다.

기자는 편집국장으로 부임하는 다음 학기부터, 본교의 모든 학내구성원이 《한성대신문》을 신뢰할 수 있도록 초석을 닦을 예정이다. 그간 《한성대신문》이 46년 동안 걸어왔던 것처럼 말이다. 앞으로 기자에게 주어질 11번의 발행 동안 한성대학교를 거울로 투명하게 담아낸다면 후회 없는 퇴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신혜림 기자

## ■ 의화정

# 『월든』을 읽어야 하는 이유

요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 때문에 저녁에는 학생 식당을 애용한다. 단품 짜게 하나로 저녁 식사를 하면 문득 30여 년 전 대학 시절이 떠오른다. 그때도 지금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품 메뉴로 대부분의 끼니가 채워졌던 걸 보면, 안정된 직장 및 사회적 위치를 누리게 된 지금이나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던 이십 대 시절이나, 뭘 먹고 사는지 측면에선 크게 차이가 없다.

삼시세끼 모두를 진수성찬으로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으나 확률적으로 수치가 낮다. 또 어차피 그렇게 먹다가는 무병장수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지금 20대인 내 아들과 제자들 역시 30년 후 오늘과 비슷한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지 않을까. 사회적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정도 음식은 먹고 살지 않을까. 이 정도 음식이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대학 시절 내가 살던, 딱 오늘날 행복 기숙사 크기의 기숙사에서 현재는 몇 배 더 넓은 전세 아파트로 옮겨가긴 했지만, 내가 주로 사용하는 공간 위주로 따져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 전세라서 불편한 것도 아니다. 그나마 자식들이 출가하면 난 이 전세집을 처분하고 시골의

소형 아파트로 이사 갈 계획이다.

문득 19세기 미국의 문학가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떠오른다. 소로는 소박한 삶을 예찬하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콩코드와 월든 호숫가에 서 손수 오두막을 짓고 2년 2개월 동안 자연 속에서 홀로 살아간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자연인'의 삶을 택한 것이다. 그곳에서 보낸 2년간의 삶과 명상의 기록이 바로 에세이 『월든 : 숲속의 생활』이다.

『월든』에서 소로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6주만 일하면 1년 치 양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증언한다. 물론 1끼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무한한 편차가 발생하므로 전제를 단다. "간소화하라, 간소화하라. 하루 3끼 대신에 필요하다면 1끼만 먹고, 100가지 요리를 5가지로 줄이고, 다른 것도 이에 비례해서 줄여라."

미래에 어디서 무엇을 먹고살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대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이들과 함께 내 삶을 꾸려갈 것인가에 집중하면 된다. 『월든』의 통찰은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신영현(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 ■ 낙산에 올라

# 근육 얻고 골병 앓는 바디프로필

요즘 20·30대 다이어트 양상이 과거와 사뭇 다르다. 체중 감량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며 근육질의 몸을 만드는 것이다. 과거에는 운동 선수들의 전유물이었던 바디프로필 촬영이 20·30대의 버킷리스트가 된 셈이다. 인스타그램에서 '바디프로필'을 검색하면 게시물만 약 186만 개가 뜰 정도로, 바디프로필은 이제 일종의 트렌드가 되었다.

바디프로필 촬영을 준비하는 이들은 선명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고단백질 음식 섭취를 병행한다. 그리고 이는 누구나 알고 있듯 건강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다. 그러나 모순적이게도 건강히 먹고 운동하며 근력 있는 몸을 만드는 사람들이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다. 더 선명한 근육

을 남기기 위해 닭가슴살·군고구마 등 단백질 위주의 극단적인 식단 관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촬영 직전에는 근육의 선명도를 높이기 위해 체내 수분을 제거하는 단수를 하기도 한다.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는 결과물에 묻혀, 바디프로필의 부작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준비 과정에서 섭식장애나 빈혈, 무월경, 다이어트 강박 등 부작용이 슬하게 발생하지만, 그로 인한 건강 약화는 모두 지워진 채 사진만 남아 조명된다. 유튜브나 블로그에서도 바디프로필 촬영 이후 폭식증으로 장애를 호소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한 블로거는 바디프로필 촬영을 준비하면서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손저림과 잦은 코피를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했

다. 또, 촬영 이후 폭식증을 겪는 사람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누군가는 더 아름다운 몸매를 갖기 위해, 누군가는 성취의 경험을 위해, 또 누군가는 자아실현을 위해 바디프로필 촬영을 준비한다. 목적이 어떻든 궁극적으로는 더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영양소를 불균형하게 섭취하며 극단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당장의 하루는 원하는 목표를 이룰지언정, 그 이후에는 망가져 버린 몸을 마주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단 하루, 한 장의 사진을 위해 목적이 전치되어 그 이상의 것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계속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승현(T 4)

한성대신문 오피니언면은  
학내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한성대신문〉은 교수님의 동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면에 실을 동정이 있으면 한성대신문사(내선 4186)로 문의바랍니다.

한성대신문사 02876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Tel 02)760-4186

발행인 이창원 편집인김주환 전신종 편집국장 박희연 디자인 (주)나눔커뮤니케이션

# 청년 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해결의 문이 보인다

지난 5월 25일,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에서 주최한 '서울권대학언론연합 청년기자단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함께 청년 현안 청취 및 문제의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청년 문제 해결방안으로 청년 현실을 반영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 문제로 ▲주거난 및 열악한 주거환경 ▲청년 일자리 감소 및 열악한 근로환경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기회 등을 뽑았다. 이 의원은 "과거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되는 사회였지만 요즘 청년은 졸업과 동시에 취업난, 주거난을 마주치게 된다"며 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Q. 현재 청년 1인 가구의 절반 이상이 월세 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떤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나.**

A.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시작된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됐던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급여 대상자가 되려면 20대는 30대보다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0대는 부모님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고 전제했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또, 청년의 주거 수요 형태를 세분화해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월세 거주 비율이 높은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에게는 공공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할수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든다.

내 집 마련이 당장 필요한 청년의 경우, 주택 자금 마련 과정에서 얻은 빚을 갚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 30년이 만기인 모기지\* 상품의 상환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부채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갚을 금액이 줄어 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다.

**Q. 불법 방 쪼개기와 같이 개조된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청년이 많다. 열악한 청**



**소속 정당**  
• 더불어민주당

**출생**  
• 1952년 12월 20일

**학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경력**  
• 동아일보 국제부장(전)  
• 제16~19대 국회의원(전)  
• 제37대 전라남도지사(전)  
• 제45대 대한민국 국무총리(전)  
• 제21대 국회의원(전)

출처: 이낙연 의원실

**년 주거환경 및 수준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A. 청년의 1인 주거 확산세가 가파른 만큼,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대책 마련이 통과가 될 수 있다. 우선, 1인

가구의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해야 한다. 최저주거기준은 인간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기준이다. 최저주거기준 충족 요건으로는 주거 면적, 주택 필수 설비 여부 등이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가 법을 이행하려는 적극적 자세도 필요하다.

또, 공유주택\*에 거주하는 청년도 증가 추세다. 이들이 겪는 문제에도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청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인 시설을 어디까지 공유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를 고민해 봐야한다.

**Q. 청년의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평택항 이선호씨 사건처럼 청년에게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고가 있다. 청년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해결할 방법은 없나.**

A. 최근에도 부산항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30대 남성이 지게차에 깔려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청년 노동자 사망 사건은 가슴 아프고 미안한 일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산업재해보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월 공포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처벌법)이

존재하지만 보완될 필요가 있다.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정책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원 50명 미만의 기업은 법이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3년 뒤에 법의 효력이 작용한다. 앞서 언급한 사고 중 청년이 겪는 산업재해가 정원 50명 미만의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다. 이처럼 작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 사고를 규제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법의 취약지대 개선에 힘써야 한다.

**Q.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많다. 이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A. 기업의 채용이 적은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중소기업의 채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고용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힘들어 현실적으로 채용인원을 늘리기 어렵다. 이를 위해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을 도입해야 한다. PPP는 기업이 고용 유지를 위해 돈을 대출받아 인건비로 쓰고, 대출비를 정부가 면제 및 상환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유지가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 확대에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또 다른 원인으로 인력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긋나는 인력 미스매치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례로 신산업 분야의 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분야는 성장하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인력공급이 부족해 향후 10년 동안 58만 명의 인력부족이 예상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청년 취업난은 완화될 것이다.

**Q. 지역인재할당제\*는 수도권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중 무엇이라 생각 하나.**

A.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지지 않으면 결과의 평등에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도를 통해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의 청년 중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하고 싶지만 주거비용 마련과 같은 고민 때문에 서울 상경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지역인재할당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주는 제도다.

더 나아가 지방대학 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줘야 한다. 전국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대학 졸업자 고용률을 늘리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고 본다. 혁신도시에 있는 학교 졸업자를 30% 고용하고 다른 지방의 학교 출신을 추가적으로 고용해, 지방대학 졸업자의 고용률을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미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 선택 폭이 넓어진 상황에서, 할당제가 역차별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대학을 입학한 학생에게만 적용하면, 역차별 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기지 : 금융 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동산 구입 자금을 대출 받는 주택담보대출. '50년 만기 모기지 국가보증제'는 상환기간이 50년인 대출을 말한다.

\*공유주택 : 개인 공간은 가지되 취사시설 같이 입주인사실을 공유하는 주택.

\*중대재해처벌법 : 안전·보건 조치무리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

\*지역인재할당제 : 지방대학,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제도.

권노은 기자 non@hansung.ac.kr



출처: 이낙연 의원실

▲이낙연 의원이 청년기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출처: 이낙연 의원실

▲이낙연 의원이 청년기자들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